

충남 공주 탄천면커뮤니티센터 올해 첫 삽

✎ 이건용 기자 | ☎ 승인 2022.07.26 14:32

| 조성명 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마을 이미지 개선에 최선”



▲ 농어촌공사공주지사가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인 www'통산골 행복발전소(커뮤니티센터)www' 조감도. 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제공

충남 공주 탄천면커뮤니티센터가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공주시 탄천면은 지리적으로 공주의 남단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 중심지의 어수선하고 노후화된 경관 및 문화와 휴식 공간 부족 등 거주에 필요한 공공 문화생활 시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공주지사는 2019년부터 공주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총사업비 39억의 예산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면소재지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 확충사업인 '통산골 행복발전소(커뮤니티센터)' 신축과 더불어 경관개선사업인 간판정비, 지역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계획 중이다.

특히 2층 규모의 '통산골행복발전소'는 노인대학과 북카페 등을 조성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조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며 "탄천면의 기초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 복지서비스 공급으로 마을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